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김지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박나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조교수
강현자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활용하여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내 14개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한 2016년의 3단계 연구 결과에 이어¹⁾ 최근의 여러 보고 자료와 각종 연구 결과물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숙달도 검증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행정적인 부분인 수업 시수와 최종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완 연구(김중섭 외, 2016)》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대학 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대학마다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최종 등급은 서로 다르나 석사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5급 정도를 최종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수와 관련하여 평균 12주, 한 학기에 학년별 차이를 두지 않고 상정한다면 90시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먼저 최근의 보고 자료와 연구 결과물을 살펴본 결과 해외 대학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1.1.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단일 전공으로 개설된 경우와 한국학 전공에서 필요한 도구적 성격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학 관련 전공으로 범위를 넓혀 한국어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중국의 경우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대학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발음, 어휘, 문법을 교육하면서 언어 지식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언어 기술 활동을 하고 있었다(추애방, 2017). 일본의 경우 2015년 15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전공 과정의 한국어 강좌는 전체 이수 학점의 50~66.7%를 차지하며 1, 2학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협정대학과 복수 학위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박진완, 2015). 베트남의 경우 졸업 후 한국 관련 기관 혹은 기업에서의 업무나 한국어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13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으며(응웬티리, 2017) 하노이국립외대처럼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다(찐티란아잉, 2015). 대만은 3개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전공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혹은 5급을 제시하고 있었다(왕청동, 2015). 태국은 2015년 현재 9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송클라대학교와 실파콘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50%에 육박함을 볼 수 있었다(홍혜련, 2015).

유럽 지역은 전공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5, 6급을 졸업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수업 시수로 볼 때 높은 속달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대학교의 경우 1학년에는 주당 14시간씩, 2학년 때에는 16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는다. 3학년 때에는 한국학 세미나를 수강하며,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4, 5학년 때에는 한국어 강독과 논문 준비 과정이 있다(정현숙, 2016). 영국 런던대학의 경우 한국어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은 2학년 때 반드시 한국의 자매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해야만 진급할 수 있다. 1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한국어 수업은 21주 동안 주당 10시간인 것으로 파악된다(연제훈, 2015). 프랑스에서는 13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 과정에서는 한국어 수업으로 매 학기 전체 시수의 54%에 해당하는 104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1학년은 초급, 2학년은 중급, 3학년은 고급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조태린,

2013).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ELTE 국립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도 6학기 동안 한국어 과목을 43학점(총 540시간) 이수해야 하고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이다(이은선, 2015). 한편 러시아에 ‘한국어’ 혹은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학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두 곳인데 정해진 외국어 교육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강좌의 시수나 교수법 등은 교수자가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송아라, 2014).

미국에서 동아시아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은 약 60여 개인데 이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학이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지원, 2014). 남캘리포니아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등 북미 지역 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일반 목적 한국어(KGP)와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KGAP),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KSAP), 특수 목적 한국어(KSP) 등이다. 이 중 일반 목적 한국어(KGP)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1, 2학년 때 집중된다(강주연, 2016).

한편 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에서는 아인샴스대학교에서만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학과의 교육 목표가 외국어 전문가와 번역 전문가 양성에 있으며 주로 문법과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하기의 비중이 낮다(송경옥, 2017).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된다.
- 둘째,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국처럼 대학 전체가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는 곳도 있지만 러시아처럼 교수 개인의 재량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 셋째, 학생들은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이상으로 높은

한국어 숙달도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1, 2학년 때까지 일정 수준의 숙달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발판으로 통번역 기술이나 한국 혹은 한국어 관련 지식을 심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환 학생 등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여 공부하고 귀국한 학습자들의 경우, 따로 이들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한국어 강좌 개설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전공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수의 대학에서 전공 과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 과정’은 한국의 대학처럼 주전공 이외에 부가적으로 일정한 조건의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한국과 다른 교육 여건임을 감안해 ‘정황상’ 부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국립동방대에서는 통번역학과를 비롯하여 역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및 대학원 등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은 단순 교양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지형, 2015).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학부에 전공 이외에도 교양 과목으로 주당 2시간 정도의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외는 별도로 ‘검정 과정’을 두어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2년 동안 주당

4시간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수업 시수로나 연속성으로나 다른 일반교양 과목과 차이를 보인다 (Edirisuriya, 2016).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는 대만과 태국, 아랍 에미리트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3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정치대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공 학생 171명에 부전공 학생은 250명에 달한다 (왕청동, 2015). 태국의 경우 송클라대학교, 실파콘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의 경우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할 경우 18학점에서 22학점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학점 143학점 중 약 15%에 해당한다(홍혜련, 2015). 아랍에미리트의 UAE대학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던 한국어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인 문어 및 구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영어와 아랍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와 아랍어로 짧은 글을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총 18학점의 한국어를 수강한다 (송경옥, 2017).

부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업 시수가 전공에 크게 못 미쳐 전체 학기에서 20학점 내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전공으로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으므로 보다 정비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3.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전공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745개 대학 중 한국어 강좌가 있는 대학은 468개교 (전체의 62.8%)에 달하며(박진완, 2015)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

서도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 외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수업은 다수의 대학에서 2년간에 걸쳐 주 2회(90분) 정도로 전체 135시간 정도에 그친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학습자와 전혀 무지한 학습자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적이다(오고시 나오키, 2015). 다만 역시 전체 159개 대학 중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이 모두 57곳에 이르며, 이는 전체의 약 36%에 해당된다(왕청동, 2015).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다른 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경우 한국학 과정은 일본학 전공자를 위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I(4학점)과 한국어 II(4학점)가 개설되어 있으나 주당 1회 두 시간씩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이다(강란숙, 2015). 그러나 아직 한국학이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의 대학에서는 전공보다는 교양 과목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모로코,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등의 여러 대학에서 교양 한국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에 2학기, 주당 2회씩 3~4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수강자가 많아져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급까지 개설되어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권현숙,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 학기나 두 학기에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높은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초급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언어 지식이나 기능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아닌 다양한 등급과 수업 내용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2. 현지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요구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 교수자 등의 변인과 상관없이 범용 가능한 한국어교육 항목 개발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2016년 연구의 숙달도 검증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내용 학습 단계 전에 도달해야 하는 한국어 언어 기술 함양 중심의 교육과정만을 변이형 개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에서는 선행연구와 숙달도 검증 조사 결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목표를 4급으로 설정하고, 1급에서 4급까지 다룰 수 있는 주제, 기능, 과제 등을 살펴 각 대학에서의 학습 환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이형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해외 5지역의 11개 기관의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의뢰하였다.

2.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설문 조사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암만 5개국 11개 기관을²⁾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응답자 및 기관 정보’,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및 기관 정보’를 통해서는 해당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 한국어 교원 수(한국인과 외국인 별개),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연도 등을 확인하였다.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설문 기관의 한국어교육 과정의 종류, 최종 목표, 수업 시수, 졸업 조건, 교과목의 특성, 졸업 후 진로, 기존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알아보았다. ‘해외

2) 구체적으로 밝히면 하노이국립외대, 하노이국립대, 호치민사범대,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원땃탄대(NTT), 호치민외국어정보대, 인도네시아 반히엔대, 요르단대학교, 인도네시아교육대, 카자흐국제관게밋세게언어대, 파라과이ISE(국립교원대)가 설문 조사 대상 기관이었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숙달도 4급이 목표로 적합한지, 기능, 과제 등은 적합한지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유용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2.2. 설문 결과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한국어 담당 교수의 수는 평균 1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어 교수는 5명, 외국인 교수는 6명이었다. 교수들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균 8년 정도였고, 학습자의 수는 평균 295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745명, 파라과이는 39명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각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공 과정이 57%, 교양 26%, 부전공 17%로 나타났으며 전공 과정의 경우 도달 목표를 5급으로 설정한 기관이 46%에 이르렀다. 부전공의 경우 2급부터 5급까지였으며 교양의 경우에는 1급부터 5급까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공 과정은 한국어 능력 5급으로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부전공이나 교양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였다.

교육 시수는 한 학기가 15주인 경우가 82%, 16주인 경우가 18%에 달했으며 한 주당 교육 시간은 각 대학과 과정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 단계의 등급을 수료하는 데에는 평균 1학기(34%)에서 1학기 반(33%), 2학기(33%) 등으로 대부분 2학기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업 조건에 한국어능력시험의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전공 과정의 경우 5급을 요구하는 기관이 50%, 4급이 25%, 3급이 25%로 나타났다. 부전공과 교양 과정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몇몇 기관에 불과했으며 기준도 상이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한국어 담당 교수들은 대부분 소속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졸업 기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67%가 ‘보통이다’,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교과목 중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은 79%, 선택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21%로 나타났다. 그중 언어 기술 관련 교과목은 61%, 내용 중심 교과목은 39%이다. 추가 개설이 필요한 과목으로는 문법, 듣기, 한국어능력시험, 통번역, 시사, 비즈니스, 관광 업무, 대중문화, 한국어교육학 등 비교적 실용적 교과목을 들었으며 폐지해야 할 과목으로는 전통예술 이해, 인지언어학, 문체론, 텍스트언어학 등을 꼽았다.

설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 초안에 대한 현지 적합성에 대해서는, 김중섭(2017)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총괄 목표 4급이 적절하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5%가 ‘보통이다’, 23%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업 시간을 4학기 동안 360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언어 기술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는 적합성 5점 만점에 4.2점을 읽기는 3.6점을 쓰기는 3.5점을 부여하였다.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이기는 하나 구어와 문어 중 문어 영역에서 현재 설정된 목표가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다.

주제 영역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 4.82점의 높은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다만 세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주제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인 ‘교육’ 부분의 적합성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여가와 오락’, ‘기후’ 같은 주제는 적합성 5점 만점을 보였다. 주제 관련 결과는 교육 항목 배열의 선후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과 과제 영역에서는 기능과 각 기능마다 최소 3개에서 10개 이상

의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적합성을 물었는데, 전체 평균 4.59점의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4.76점, ‘설득하기와 권고하기’가 4.66점, ‘태도 표현하기’가 4.5점, ‘감정 표현하기’가 4.44점으로 나타났다. 설명, 묘사, 서술, 확인 등 가장 보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역시 가장 높은 적합 정도를 보였다. ‘감정 표현하기’의 경우에는 위로, 불평, 불만, 후회, 안도, 놀람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부 항목마다 적합성 정도의 차이가 커서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현지 교재, 부교재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유용하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집중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3.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이 글에서는 한국어 과정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변이형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는 부전공과 교양 과목만 운영된다고 해도 한국어 전공 과정의 틀 안에서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흥미, 관심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범용적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전공의 경우는 제안된 해외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의 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교양 과목의 경우는 초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해외 대학의 경우 졸업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4~5등급이며 한 학기당 평균 15주

약 90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보인다. 또한 1, 2학년 때에는 언어 기능 자체에 집중하지만 3, 4학년에 들어서면서는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학 등의 내용적인 학문 영역이 적극 도입된다. 다시 말해 전공 영역에서 한국어 집중 과정은 대개 2학년까지 운영되며, 전공 영역에서 목표 숙달도는 최저 4급임을 알 수 있다. 3, 4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 자체가 아닌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전문 학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교수자의 영역을 넘어서며 대학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전공 내용 영역은 변이형 제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졸업 자격을 5급으로 제시한 대학의 경우도 3, 4학년에 마련되어 있는 한국어 과목을 통해 한 단계 이상의 등급 상향, 곧 4급에서 5급으로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을 아래와 같은 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과정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의 한국어 집중 과정
대상 학년	1~2학년
도달 목표	4급
수업 시수	학기당 90시간 × 4학기, 총 360시간

이제 교육과정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①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②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③ 교육 내용의 범주와 내용 상세화로 나누어 제안하고 이어 ④ 변이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한국어교육 목적을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차별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5급부터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4급을 해외 대학 교육과정 변이형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급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정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³⁾ 총괄 목표의 기술을 위와 같이 직업 관련 기본 업무, 주제, 문어와 구어 및 격식과 비격식의 구분, 문화의 4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최종 숙달도 목표를 4급으로 하는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은 1, 2학년 총 4학기 360시간의 교육 시간을 제한하되 아래와 같은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1급	2급	3급	4급
1학기(90시간)	2학기(90시간)	3학기(90시간)	4학기(90시간)

3) 해외 대학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4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데 대해 62%가 '적절하다', 15%가 '그렇다'로 대답함으로써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다(23%)'고 생각하는 이유로 '수업 시간을 4학기 36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은 4급의 총괄 목표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일 1급부터 1학년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중·고등학교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태국어 그 예이다(홍혜련, 2015).⁴⁾ 이때 대학 1학년 학습자들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 중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배운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⁵⁾ 따라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를 최저점으로 삼아 아래와 같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급		3급		4급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3.3. 교육 내용 범주와 내용 상세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서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주는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요구, 흥미와 관심, 곧 학습자 변인에 적합하게 선택 및 배열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 조사’의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4) 2015년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는 51개교에 달한다(홍혜련, 2015:64).

5)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변이형의 경우, 2급을 목표 도달 등급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때 2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중학교에서는 2급의 50%까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급의 75%까지를 목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제와 기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⁶⁾

주제	여가와 오락, 기후 → 쇼핑, 대인 관계, 공공 서비스 → 개인 신상 → 주거와 환경, 일상생활 → 식음료, 건강, 여행, 교통 → 교육
기능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 태도 표현하기 → 감정 표현하기

먼저 ‘여가와 오락’ 가운데 하위 항목인 ‘대중문화’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 및 이번 설문 조사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나타났다. 중급 단계의 주제 항목으로서 한국인의 비즈니스 문화나 직장 예절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도 특징적이었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능으로써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의 거시적인 학년별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법 교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한국어 지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1, 2학년의 경우 ‘한국어학개론’과 같은 문법 교과를 한국어 기능 교과와 함께 가르치는 방안이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졸업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으므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학개론’을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과 연계시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선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요 관심 주제인 한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 문화 능력 함양에 대한 보다 현지화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⁷⁾ 저학년

6) ‘로 나열된 영역은 동일한 적합성 점수로 집계된 경우이다.

7)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은 강민규·윤여탁

에서의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문화(異文化)능력 배양과 같은 보다 난도 높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4학년의 경우, 전문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결되는 한국어 기능 과목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비서 한국어’ 등 취업에 필요하거나 취업 시 요구되는 실용 한국어 과목이 제안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수적 증가를 본다면 한국어 교수법 과목 개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통번역 희망 학생을 위한 한국 이해 과목 개설 및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1, 2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3, 4학년 과정과 달리, 다소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를 거시적인 범주로 다루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의 미시적인 주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어려운 정치, 사상, 철학 등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 응답 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과 과제’ 면에서는 학문이 목적인 학습자들에게 ‘정보 요청하기와 전달하기’ 및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에 대한 대학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 2학년 단계부터 이러한 기능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이 부분에서는 해외 대학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으로 ‘3급’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급과 2급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최종 목표인 4급의 경우는 현지 사정에 따라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기관 별로 이질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2), 김훈태(2013), 이일수·주진오(2015), 김효신(2016), 김선아(2017), 김중섭·최은정(201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 대학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어 학습 목적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1위)’, ‘한국 및 한국 회사에의 취업 및 통번역, 여행 가이드 등의 취업(2위)’, ‘유학 등 한국 대학원 진학(3위)’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교 1, 2학년 과정의 학습자’를 가정하고 3급의 주제 및 기능/과제를 선별하고 구안하고자 한다. 먼저 3급의 총괄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의 ‘주제’ 중 설문 조사 결과 적합성 판정 점수가 높았던 것은, ‘기후,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주거와 환경, 공공 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 ‘학교생활’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주제로 중고등학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실제적인 주제이며 학습자 요구 분석에서도 1위 필요군 주제로 분류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여가와 오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대중문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 주는 공통된 주제이며 세부 주제 ‘영화, 공연’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역시 3급의 주제로 분류되어도 무리가 없다. ‘쇼핑’은 주제 등급화에서 1급부터 4급에 걸쳐 있되 중점 등급은 2급이지만 설문 조사에서 교수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어 3급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인 관계’의 경우 ‘편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 곧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모임’의 중점 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어

3급 기술에 매우 적합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대학 교육 과정 변이형 3급의 주제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하위 주제 항목을 제안한다.⁸⁾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한편 ‘기능’의 경우,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써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에서 맥락과 상황을 설정하고 언어 자료와 활동을 상세화하는 동인이 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 기능 중 이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에서는 이 가운데 해외 대학 변이형 기능의 예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를 선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 요구 조사에서도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세부 하위 기능에 관계없이 필요 1, 2위군 안에 들어간다는 공통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에 해당하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설명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위 기능과 관련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세부 과제

8) 적합도 판정에서 ‘여가와 오락’과 함께 5점 만점을 받은 ‘기후’ 그리고 ‘주거와 환경(4.78)’, ‘공공 서비스(4.98)’의 경우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주제라 판단되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택 지침 및 이 제안에서 상정한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생 1, 2학년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과제’를 구안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3급 주제로 선별하였던 ‘학교생활,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에 따라 범주별로 제시한다.

주제	과제
학교생활	· 학교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사용법 알아보고 소개하기 · 교내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근처 맛집을 소개하고 상황별 최고의 맛집 추천해 주기 · 다양한 교내 동아리 알아보고 설명하기 · 인기 있는 교양 명강의 알아보고 소개하기 · 학교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발표하기 · 전공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 한국 교환 학생으로 가는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교내 학생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받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메일이나 편지 쓰기 · 학교의 역사를 조사한 후 시대별로 기술하기 · 대학생 기부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기숙사 소개하고 기숙사 특성과 규칙 기술하기 · ‘기숙사 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결과 발표하기 · 학교 교환 학생 제도 소개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 효과적인 한국 유학 준비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와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소개하기 · 학교 축제와 학과 학술제 소개하기 · 자취생을 위한 3분 요리 조리법 기술하기 · 한국 대학생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조사하여 특징 설명하기 · 한국어교육 관련 무료 사이트(예, 누리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누리집)와 이용 방법 소개하기 · 학과 홍보 전단지 만들기 · 학과 교과 과정을 누리집에서 검색한 후, 학년별 교과목을 짝과 함께 확인하기 · 학점 잘 받는 법을 선배에게 물어서 소개하기 · 학과 졸업생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기 · 대학생 때의 소망 목록(버킷리스트) 진술하기 · 자각 또는 결석한다는 메일이나 편지, 문자 메시지를 한국인 교수님께 보내기 · 우리 학교 특징 묘사하기 · 기숙사 건물과 전공 학과가 위치한 건물 특징 묘사하기 · ‘공강 시간 의미 있게 또는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여가와 오락	· 좋아하는 한국 영화 소개하기 · 한국 대중문화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소개하기 · 한국과 자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 영화와 자국 영화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의 대중가요와 자국의 대중가요의 가사 비교·대조하기

주제	과제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에게 팬레터(fan letter) 써서 보내기 ·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통된 특징 묘사하기 · 한국의 국민 배우와 자국의 국민 배우 비교·대조하기 · 한국의 국민 가수와 자국의 국민 가수 비교·대조하기
대인 관계	· '사랑받는 선후배 되는 법'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친구의 요건'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기숙사 룸메이트(roommate) 되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대화 방식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타인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란?'이란 주제로 토론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카드나 메일 쓰기 · 한국 대학생의 연애편을 조사한 후 자국 대학생과 비교·대조하기
쇼핑	· 학교 근처의 좋은 가게 소개하기 · 좋은 중고 제품 싸게 사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에서 반드시 사야 할 쇼핑 목록 조사하여 발표하기 · '인기 있는 부모님 생신 선물 품목'과 '생신 선물 잘 사는 법' 설문 조사 후 발표하기 · '이성 친구 선물 잘 사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우리 학교 기념품 품목 제안하고 이유 설명하기 · 최근에 산 물건 묘사하기
개인 신상	· 교환 학생 인터뷰 장면에서 자기 소개하기 · 아르바이트 사장님 앞에서 자기 소개하기 · 자신을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고 이유 설명하기 · 자신의 관심 분야 서술하기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회원 신청서에서 자기 소개하기 · 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소개하기 · 자신의 멘토를 인터뷰한 후 멘토에 대해 설명하기

지금까지 기술한 주제, 기능 및 과제를 결합하여 항목을 예시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등급	학습 목표	
	· 학교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교환 학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할 수 있다.	
3	학습 시간	2차시(1차시/50분)
	주제 항목	학교생활
	기능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과제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설명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 소개하기 ·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

주제와 기능 및 과제가 정해졌다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문법과 어휘 항목을 참고하여 문법과 어휘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제, 기능, 과제와 함께 해당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목표와 학습자들의 요구라는 변인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예시한 문법과 어휘 항목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과 4급을 참조하였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및 기관의 교육 목표에 따라 유연성 있는 선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분	어휘	문법
내용	교환 학생 선발 시기, 교환 학생 면접, 교환 학생 기간, 교환 학생 지원 자격, 지원 가능 전공, 학교 지원 내용(장학금 또는 생활비 등), 학점 이수 규정 관련 어휘	학교의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요청과 정보 전달에 필요한 문법
예	교육과정, 국가, 등록, 등록금, 면접, 보험, 생활비, 신청서, 장학금, 재학, 평가, 휴학(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강의, 교류, 귀국, 연령, 요구, 원서, 자격증, 최종, 책임자다, 추가, 취업, 학비, 합격자, 허가, 허용(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던데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기 위해서(교환 학생 자격이나 교환 학생 지원 목표에 대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에 대한/에 대하여(교환 학생 제도에 대해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면 좋겠다(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아아겠/어아겠/여아겠(교환 학생이 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더라고/더라고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에 따르면, -에 의하면(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대(요), -래(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4. 결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위계와 범주를 제시하는 가장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능한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교육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란숙(2015), “해의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어교육과정 사례로 본 유럽 한국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5쪽.
- 강민규, 윤여탁(2012), “한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5~56쪽.
- 강주연(2016), “북미 대학 한국학 전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숙(2016),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아(2017), “홍콩 내 주요대학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사례”, 《이화어문논집》 42, 이화어문학회, 5~32쪽.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최은정(2017),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318, 한글학회, 199~219쪽.
- 김지원(2014), “미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의 역사성”, 《서양 역사와 문화연구》 32,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71~196쪽.
- 김지형(2015), “한국학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성-권역별 국외 대학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75쪽.
- 김효신(2016),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 85, 한국사상문화학회, 505~532쪽.
- 김훈태(2013), “해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5쪽.
- 박진완(2015), “일본내 한국어전공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0~372쪽.

- 송경옥(2017), “카타르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아라(2014),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 및 전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제훈(2015), “런던대학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쟁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1~111쪽.
- 오고시 나오키(2015),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쪽~330쪽.
- 왕청동(2015),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어교육》 2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163쪽.
- 응웬티리(2017),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선(2015),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헝가리 ELTE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일수, 주진오(2015),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어교육콘텐츠 개선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한국콘텐츠학회, 45~55쪽.
- 정현숙(2016),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구보학보》 14, 구보학회, 251~283쪽.
- 조태린(2013), “국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프랑스 주요 대학”,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9~259쪽.
- 쩨티란아잉(2015),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하노이국립외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1~359쪽.
- 추애방(2017), “중국 대학 학부 과정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종합한국어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혜련(2015), “태국의 한국어교육현황과 발전방안”,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63~85쪽.
- Edirisuriya(2016), “스리랑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